



난 하루살이가 아니야

글·그림 새벽달곰&쥐콩

작가의 탄생



곰은 달라지기로 했어요.



난 하루살이가 아니야

글·그림 새벽달곰&쥐콩



난 하루살이가 아니야

글 새벽달곰 · 그림 쥐콩

작가의 탄생



곰은 달라지기로 했어요.



난 하루살이가 아니야

글 새벽달곰 · 그림 쥐콩

작가의 말



좋아하는 것이 많아서 일을 시작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하루 남기고 다 하는 꼼사람입니다.
많은 날이 주어졌지만, 하루 전에 하루살이처럼 살아서 이런 삶을 끝내고 싶어서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약속보다 먼저 도착하고, 기한보다 먼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으나 쉽지 않아 계속 다짐 중입니다.
그림책을 좋아해서 신청했는데 작업을 하며 좋아하기로만 다짐한 날을 보냈습니다.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그림책이 좋아서

지은이 새벽달곰&쥐콩 feat.호랭이 (깨알도움 백호)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발행

펴낸곳 양주희망도서관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78-47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제 작 (주) 작가의탄생

[비매품]

*본 도서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난 하루살이가 아니야

글·그림 새벽달곰&쥐콩





숲속에 곰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곰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곰이었어요.

이름 : 날밤곰탱

나이 : 먹을만큼 먹음

성격 : 대체로 온순하나,

마무리하는 날이 다가오면 포악해짐.

좋아하는 것 : 싫어하는 것 빼고 다 좋아함.

특징 : 겨울잠 대신 아침잠을 잔다.





이 꿈은 놀기 좋아해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꿈지락꿈지락하며 노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다고 계속 놀기만 하면 안 되는 꿈이에요.
할 일이 많거든요.



가족
후기
과제
집안일

엄마로 요리, 집안일도 해야 하고,



HAPPY





수강생으로 과제도 해야 하고

동아리원으로 책도 읽고,
모임에 가지고 갈 숙제도 있어요





넌 나 같이 사는구나

하지만 꿈은 자꾸 일을 미루고 놀아요.



곰이 할 일은 급하게 하니
식구들의 불만 사항은 쌓이고 있어요.



꿈은 모임에 늦어 사과하는 일도 생기고
중요한 시험도 떨어져요



0 : 00

하루 수없이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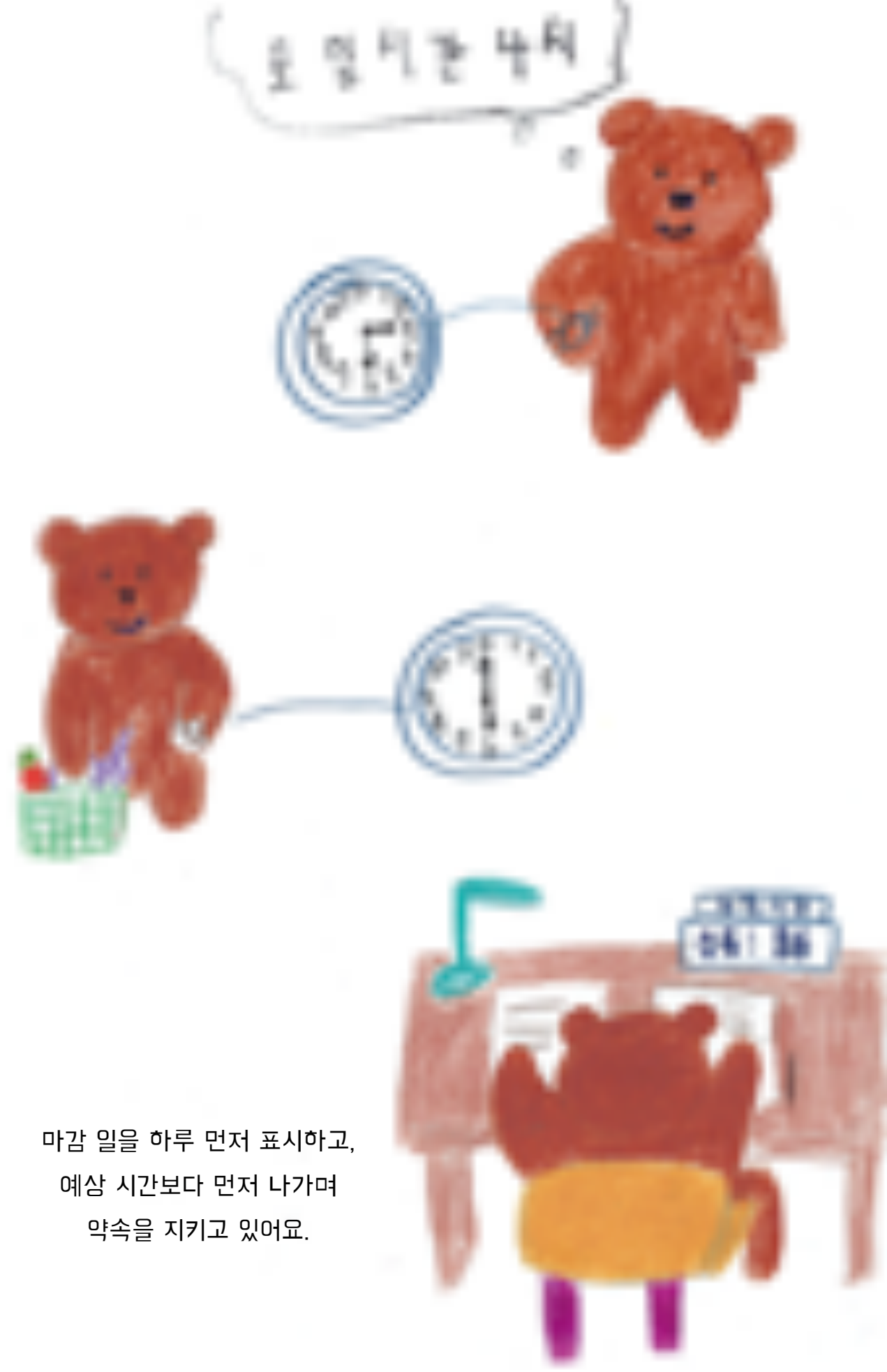


이런~

곰은 결국 당분간 '활동 중지' 벌칙을 받았어요.



꿈은 달라지기로 했어요.



마감 일을 하루 먼저 표시하고,
예상 시간보다 먼저 나가며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곰은 그렇게 신뢰를 찾으며 일상의 평화를 찾았어요.

“아... 다했다.”

마지막 날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꿈이 되었어요.

꿈은 이제 예전의 꿈이 아니에요.

꿈은 하루살이를 보고 크게 소리쳐요.

‘난 이제 하루살이가 아니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대답이 없어요.

다른 하루살이거든요.

